

완성된 사랑이 자비 보살행

중생 세간의 기쁨은 그 때 뿐인 것이 많습니니다. 가령 집을 샀다고 기뻐하지만, 집도 평생 열 채를 살 것도 아니고 그 때 뿐입니다. 중생이 기쁜 일이라는 것이, 죽어도 한이 없다 할 정도로 기쁜 일이 평생에 몇 번 없습니니다.

그 다음에 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많은 것인데 우리는 얻어먹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수경>에 '복 복자'가 두 번 나오니니다. '受福如佛等(수복여불등)'이라 할 때, 수복은 부처님한테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이 바로 베풀어 주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願我勝福(원아승복)'이 나오는데 전부 베풀어주는 복을 말합니다. 얻어먹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부처님의 경지, 즉 원력의 삶에 들어서서 보살의 삶으로 가는 삶을 몇 가지 살펴보고 하겠습니니다. 지금부터는 중생의 삶에서 원력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원력의 삶쪽으로 나아가는데 목표도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임금에 있었는데,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금으로 된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화살이 사슴에 꽂혔을 때는 사슴과 금화살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지만, 빗나간 화살은 따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신하들이 햇빛을 들고 화살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제 화살이 다 회수가 안 되어서 화살을 찾으려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내일 와서 찾지 뭐하려고 이렇게 밤에 햇빛 들고 찾은 것 뭐 있느냐. 내일 와서 찾으라"고 하니, 신하들이 "오늘 밤에 찾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이 금으로 된 화살을 사용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공자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공자님이 가만히 듣고 하는 말이 "왜 초나라 사람만 주어 가야 하느냐? 그냥 사람이 잃어버린 것, 사람이 주우면 되지" 이렇게 말하

고 나서, 천하통일할 만한 인물이 아니고 그 초나라 임금 밖에 못해먹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또 노자님이 그 말을 듣고 초나라 임금이나 공자님이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 주우면 어쩔고, 노루가 물어 가면 어쩔고, 꼭 사람만 주워야 되느냐? 그것이 사람 욕심만 기른 다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자님이 그랬고, 노자님이 그랬고, 초

그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되고 불었습니니다.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스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은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니다."

이런 경지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떠나서



정락 스님의 법문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듣기 위해 모인 광주지역의 불자들.

나라 임금이 그랬다고 하니 우리 불자들에게 물으니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했는데 금은 곧 색이거든요. 그래서 "금즉시공(金卽是空)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를 공(空)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금에 대한 욕심, 이런 것까지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심(真心) 즉, 화 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주자의 스승인 정호, 정이 두 형제가 하루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직전에 이르렀다.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수라장, 아비규환입니다. 사람들이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 때 두 형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니다. 한참 뒤, 배가 다행히 언덕에 닿아 걸어나오면서 형제간에 대화를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아까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몸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어땠습니까?"고 물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은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린 겁니다. 치심(治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심(修心)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고요히 할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무심(無心)의 경지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습니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은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깊이 그 뜻을 알아듣는다면, 정명도, 정이천 그 형제의 경지에서는 알아들을 만한 말이에요. 그런 경지가 갖추어지면 얼마나 참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혹시 불자들이 절에 갔을 때,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친구 집에 갔을 때 초청 받아 갔는데 푸대접 받아서 욕하고 싸우고 나올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그 집 간 일도 없고, 욕 먹은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

원력의 삶이라는 것은 반야공(般若空)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니다만, 업력의 삶을 버리고 원력의 삶으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언급한 '금즉시공'이요, 또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는 그런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원력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생의 세간에 그달려서 얽매어있는 한 업력의 삶에서 못 벗어나습니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원력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인연 만나서 참 좋습니다. 정락=양행선 광주 전법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8. 원융불교의 실천자 이영무 스님

운 제 이 영 무 (李 英 茂, 1921~1999) 스님은 원융(圓融) 불교의 실천자다. 특히 원호 대사와 태고 보우 국사를 중심으로 <유마경>의 불이정토(不二淨土) 사상을 널리 선포하였다.

운제 스님은 1922년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1970년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어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이 될 때까지 대학생활교원연합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강의해 주셨다. 장차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요직에 앉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철학을 심어주기 위하여 <유마경> 원전과 원호 대사의 <열반경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하였다.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교 등에서 스님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곧고루 모였다. 불교도 불교이지만, 한문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은 사람도 많았다.

"내가 한문 실력만 가지고 역사학을 전공하다 보니 영어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무섭

의 법사가 되고, 목담 스님에게 계를 받아 태고종 법규위원, 종회의원, 고시위원을 거쳐 총무원장, 승정의 위에 오르고 동방불교대학장까지 겸한 것은 태고보우 국사의 원융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늘 강조하였다.

"한국불교는 아만, 아집 때문에 망했다. 유생들이 골육상쟁(骨肉相爭)한다고 욕하지만 그들은 현실사회에 뛰어들어 권력과 이익을 가지고 싸웠지만, 중은 달벼슬만도 못한 주지직을 가지고 아귀(餓鬼)다름을 하였으니, 이별 바에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 정도 집이었다. 정도전, 이성계, 모두가 보우 국사 제자 아닌가. 그런데 명나라 패들이 원나라와 연관 있는 스님들을 깎아 내리고



유마·원호의 계승자... 대불련에 큰 관심 두고 후배양성 매진

3-4명에 달해 속칭 '원호파'와 '유마파'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내가 1937년 석왕사에서 중이 되어 석왕사 강의를 마치고 강남 봉은사 강사로 취임하였을 때만하여도, 청년들의 열기가 삼등(三冬)의 얼음도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필필 끓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보호하는 생각, 가정의 행복을 계승하는 정신이 강하여는데, 6·25 이후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개인 자유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상하 전후 좌우가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 이것이 민주화 하는 것이니 알 수 없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조용하면서도 끈기가 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으므로 청강생들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조용해진다. 스님의 전공이 역사학이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조선대학교, 건국대학

다. 학지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세상에 크게 유행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불교를 하는 사람은 중앙 3국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팔리어, 산스크리트에 능해야 된다. 한국불교가 중국불교를 계승하여 한문 일변도로 공부하는 악습도 있지만 오히려 불교경전을 통해 한문공부도 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렇게 난제를 오히려 호제로 만들어 후배들을 길렀다. 원호 대사가 <십문화정론(十門和淨論)>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주장한 것이다.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 중 무상(無常) 속에서 영원을,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부자유 속에서 자유를, 더러움 속에서 청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난관에서 얻어진 철학이 아니었는가 깨우쳐 주었다. 나이 들어 서울 불이성 법륜사

죽으니 그럴 바에는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유생들의 생각이었어." 78세가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스님의 그 생각은 변치 않았다. 몸이 불편하여 단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니, "나는 나를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고행을 체행하고 있네. 내가 직접 40일 단식 하고 나니 부처님 6년 고행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네." 하고, 금방 다시 살아나 좋아하시던 붓씨에도 쓰고 시도 읊어 주셨다. "서래(西來)의 한 곡조 이는 이 없으니 백야(伯牙)는 있어도 종자기(鍾子期)가 없는 격. 후를 고요히 있어 밤 지내니 줄로(珠露) 맺고 님은 달 장삼에 비치네."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전수교육 안내



[장한빛 仙師]
•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 압동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 에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교육장소 : 강화 한빛건강修煉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11월 13일(금) ~ 11월 15일(일) (2박3일)
- 신청접수 및 문의 : 032)937-7182 / 야)010-6299-8386 인터넷검색창 : 한빛건강수련원, www.한빛건강수련원.com *상당면 연락시 자료요청하시면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전수비용 : 기초과정/ 고급과정/ 연구과정
- 주 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교육대상 :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 (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인) 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학에 관심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 후 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터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 研修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학에 관심 있는 분/ 주강아독하면서 醫道를 구하는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전수교육 내용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 正骨整體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活人氣功)
2. 正血清血
전신의피가아마야 無病長壽 (15개연이론)
3. 正氣(通經活絡)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악성, 백내장, 치주염, 이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오십살, 자궁근증, 물혹(피킨손, 루게릭은 임상중)
※10년~20년 이상 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 외과적영역
수술날자받은 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간질성 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장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번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18세때 무술에 입문하여 사범, 관장직절 저의 무술도장에서 회원들의 사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인해 대체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뼈결골, 침술, 지압, 기공, 최면술, 카이로프랙틱 등 각종 단계로부터 또는 개인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에게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조금은 조국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 미국을 떠나 이민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지금까지 원주민을 상대로 기 치료를 하면서 가끔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차 지난 8월 12일 기내에서 모 일간지를 통해 원장님의 특강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웬지 느낌이 와 닿아 전화 접수후 바로 교육에 입학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속는 셈치고 휴식도 취할겸 해서 참석했는데, 막상 교육을 접하고 보니 정말 기적같은 현실이 일어나더군요.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능력과 투지, 그리고 인자한 성품, 열정적인 연구자의 모습까지 정말 감동했습니다. 원장님의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에서 기 치료사 박00(10기수료)

나는 직업이 승려입니다. 세속 60년이죠. 법랍 26세 인연에 의해 강원(嶺)에서 수행하였고, 큰 사찰에서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마산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지요. 중생들에게 불연을 맺게 해주는 방편을 고민해 오던중 강좌도 한빛건강문화원에서 해답을 찾은 내용을 적어 봅니다. 먼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 부처님 - 나는 카이로프랙틱, 최면학, 빔의, 전염요법, 수지침, 기공정통, 봉침술, 수정리, 레이키, 따주기, 신병다스리는법, 물론 명리학도 한때는 수강을 받았지요. 좋은 것도 있었고, 때로는 돈이 아까울때도 있었습니니다. 뭔가 20% 모자라는 것을 찾기 위해 목말라 했는데 무혈,무통,무수술, 세계최강 -한빛건강문화원- 장한 빛 선생을 찾아가서 서로 마주보는 순간 수강을 하기로 결정했지요. 수강의 결정적 동기는 대구 00산 00소속의 00의 팔막한 한마디, 유정이 해결 된 것 같습니다. 그레요, 5박 6일간의 수강을 했습니다. 수강후 29년된 아토피를 해결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많이 필요없습니니다. 부천중학교 선생님이

000 불자 이분이 29년 아토피로 고생한 것을 해결했습니다. 정말 마산시 산호동 거주 000 63세 00사 불자 명법: 안광다리 등등. 내려 올때나 올라갈 때 언제 나 불편했던 것을 요번 수강 후 해결했습니다. 교육 도중에 나이 많으니 보살님이 오셔서 시술받는 그대로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사님께서 이 소승을 1개월씩 1개월씩 3개월만 선사님의 도력을 전수할 수 있게끔 마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원한 풀 겸치시어 사랑과 희망으로 큰 가르침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 두 손 모읍니니다. -6기 수료생 마산에서 승려 00-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심수련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나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짐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심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 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시는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승려 00 (3기 수료)